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11.5~9)

1. 한·일 정상 대화 관련

□ [언론 동향]

- 관찰자망(观察者网)은 11월 4일 진행했던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만남에 대해 양국 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인용 보도¹⁾
 - o 양국 대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화를 통한 양국 간 현안 해결 원칙을 확인했으며 외교적 논의를 통해 ‘실질적 관계 진전’을 이끌어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인용 보도(韩联社)
 - o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청구권 협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과 함께 양국 관계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계기를 조성하자고 말했다고 인용 보도(日本共同社)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스틸웰 미 차관보가 한·일 양국 정상의 대화에 대해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며 한·일 정상의 만남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인용 보도²⁾
 - o 그러나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의 종료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음.

2. 지소미아 종료 관련

□ [전문가 분석]

- 팡배신문(澎湃新闻)은 지소미아 종료와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한 중국 전문가 의견을 보도³⁾

1) 「文在寅称韩日领导人会面为两国对话迈出一大步」, 『观察者网』(2019. 11. 05)

2) 「美助理国务卿访韩 评价韩日首脑对话:是积极信号」, 『中国新闻网』(2019. 11. 06)

3) 「《韩日军情保护协定》即将到期, 美国施压下韩国是否续签?」, 『澎湃新闻』(2019. 11. 07)

-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詹德斌 한반도 연구센터장은 “현재 한국 내 보수파들이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함에도, 진보파와 한국 현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고 언급
- *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이 일본에 압박을 가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연장이 일정 부분 한국에 이롭다는 것을 알지만 현 상황에서 연장한다면 여론을 악화시켜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
- * 또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은 양국의 관계 개선에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으나, 문 대통령이 제안한 고위급 대화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지소미아에 연장에 대해서도 공통된 인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李开盛 부소장은 “한국 국민은 지소미아와 한·일 무역분쟁,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위안부 문제를 함께 보고 있으며, 반일 감정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을 것” 이라고 분석
- *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이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
- *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문제를 양보하고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배상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도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분석
- *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이 당장은 서로에게 선의를 베풀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

□ [언론 동향]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1월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계속해서 한국에 종료 결정 철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인용 보도⁴⁾
- 미국 국방부 랜들 슈라이버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

4) 「美高官：将说服韩方续签日韩《军事情报保护协定》」, 『中国新闻网』(2019. 11. 07)

미·일 3국 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아직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고려할 시간이 있으며 본 협정이 미국에게 주는 이익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에 종료 결정 철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으로선 한국의 입장(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인용 보도⁵⁾

o 8일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부당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

* 또한 미국에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부득이한 종료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

- 인민일보 해외망(人民日报海外网)은 22일에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인용 보도⁶⁾

o 그러나 정 장관은 “그 전제조건으로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철회”임을 강조

o 또한 한국 정부는 협정 연장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에 “지소미아의 종료는 한·일 관계의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인용 보도

- 관찰자망(观察者网)은 미국 국방장관이 11월 중순 방한하여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등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인용 보도⁷⁾

o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이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의 부분이라고 밝혔으나, 매체에서는 동북아 지역 중 한국이 유일한 방문 지역이라고 보도

5) 「韩国外长：韩国终止韩日军情协定的立场没有变化」, 『中国新闻网』(2019. 11. 08)

6) 「韩防长：韩日军情协定应维持 前提是日本取消限贸」, 『人民日报海外网』(2019. 11. 05)

7) 「韩青瓦台：韩日军情协定终止不会疏远韩美同盟」, 『观察者网』(2019. 11. 09)

3. WTO 2차 양자협의 관련

□ [언론 동향]

-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한·일 양국의 WTO 2차 양자협의를 11월 내 진행 예정이라고 인용 보도⁸⁾
- o 한·일 정상 간 만남으로 양국 대화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2차 양자협에서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재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심리 절차로 넘어가게 됨.

8) 「韩日将就贸易摩擦进行第二轮磋商」, 『中国新闻网』(2019. 11. 08)